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87>

JCCT 2018-8-10

한국 신문 사설의 정치적 성향 분석 연구

The Study on Political Stances based on Editorials of Korean Newspapers

반현

Hyun, Ban

요약 본 논문은 뉴스 생산자인 저널리스트, 혹은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이 신문사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평가어를 근거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이념이 상이한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기준으로 북미(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사설들을 질적 양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전후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30일 동안에 실린 조선일보의 16개의 사설들과 한겨레에 실린 14개의 사설을 두고 첫째로 사설 제목에 드러난 평가어들을 부정, 긍정,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질적 목적을 위해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출판된 2개의 사설들을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틀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 사설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감정평가에 의존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한겨레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공간확대'와 같은 '개입' 요소를 통해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한국 신문, 사설, 정치적 성향, 2018 북미정상회담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political stances of news producers or news organizations by analyzing editorials from two Korean newspapers,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which are totally different in ideology,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In particular, the headlines from 16 editorials and 14 editorials from the two newspapers respectively published from May 28 to June 27 were analyzed in terms of political stances to a U.S-North Korea Summit. Moreover, two editorials published right after the U.S-North Summit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within Martin and White (2005)'s framework.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Chosun ilbo showed a negative stance to the summit by employing the 'feeling' factor within an attitude component most frequently, whereas the Hankyoreh was overwhelmingly positive toward the issue and the dialogue expansion factor within an engagement component is most frequently used to deliver its positive stance toward the issue.

Key Words : Korean newspapers, editorials, political stances, 2018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정회원,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접수일: 2018년 5월 3일, 수정완료일: 2018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5일

Received: May 3, 2018 / Revised: June 16, 2018
Accepted: July 15, 2018
*Corresponding Author: jamesban@naver.com
Dept. Mass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Korea

I. 서론

대중매체담론은 사회 문화적인 인식에 대한 사회의 흐름을 보여주는 틀을 제공하며, 한 국가를 지배하는 사회 정치적 관심사에 대해 대중의 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결정한다 (Herman & Chomsky, 2002)[1]. 이러한 대중매체담론을 형성하는 매체 중에 신문텍스트는 대중적 흡수성이 높은 매체로써 시사성, 공공성, 주기성뿐만 아니라, 분석, 평가기능, 정보 기능을 갖춘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신문사설은 사회이슈에 대한 평가나 관점, 혹은 생산자인 저널리스트나 언론사의 이념을 보여주는 척도로 평가받아 왔다(van Diky, 1996)[2]. 신문사설은 논리적으로 텍스트 내용을 전개하고 합리적 사고의 기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신문 사설은 사회이슈나 현상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며 더 나아가 독자들의 가치관과 이념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신문 사설을 기반으로 한국 언론지의 보도성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3]의 평가어체계를 기반으로 신문사설에 나타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 및 관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신문사설

신문사설은 한 사회의 관점을 보여주는 뉴스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회, 정치, 문화적 관행 분석의 틀로 적극 활용되어 왔다. 사설의 미디어 담화는 사회적 관행과 언어 간의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노 & 반, 2017)[4]. 일반기사와는 달리 신문사설은 뉴스생산자인 저널리스트나 칼럼니스트, 혹은 언론사주와 편집장들 등의 전체적인 이념적 성향을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주장한다(Haney and Tator, 2002).[5] 사설은 중립성을 표방하지 않으며 편향된 시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양극화된 어휘들, 과장된 표현 및 수사학적 표현들을 사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노 & 반, 2017; Ban & Noh, 2018)[6][7].

2. 평가어 체계

평가어(appraisal)란 특정 사안에 대해 저자나 혹은 화자가 가지는 느낌, 감정, 혹은 판단을 보여주는 언어학적 표현을 의미한다. 즉, 저자나 화자는 평가어의 선택을 통해 가치관과 입장을 반영하고, 독자와 청취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은 입장(stance), 주관성 (subjectivity), 근거성(evidentiality)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 왔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appraisal theory)를 분석적 틀로 활용하여 한국 신문사설을 질적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마틴과 화이트의 평가어 체계 (2005)
Table 1. Martin and White(2005)'s Appraisal Theory

평가어체계	태도	감정평가
		행위평가
		사물평가
	개입	대화적공간축소
		대화적 공간확대
	강도	세기
조경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요소들은 각각의 하부요소를 가지게 된다. 평가어 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살펴보면, 태도(attitude)는 화자나 저자가 사물, 사람, 사건, 행동 등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보여주는 언어학적 표현을 지칭한다. 반면 개입(engagement)은 제시된 상황에 대한 화자나 저자의 입장을, 그리고 강도(gradation)는 태도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동원되는 언어학적 표현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태도는 감정평가(affect), 행위평가(judgment), 그리고 사물평가로 세분화된다. 감정평가는 사람, 사물, 현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한다. 반면, 행위평가는 사회문화처럼 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나 규칙, 이념을 기초로 한다. 사회적 잣대를 기준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에는 특정 행위의 정상적(normality), 충실성(tenacity), 그리고 능력(capacity)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둔다. 예를 들어,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발인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부산일보, 1.18, 2017)[8]에서의 ‘오열’은 감정평가의 명사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 경우에는 진실성(veracity) 혹은 윤리성(propriety)에 기준을 두어 판단한다. 사물 평가도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reaction), 사물의 비율이나 상세함같은 구성과 구조에 대한 평가(composition), 혹은 가치(valuation)으로 하위 구성된다. 예를 들어, ‘해상 뿐 아니라 한강 등의 내수면을 운항하는 선박들도 구조 장비 등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4, 14, 2014)’[9]에 ‘허술한’ 형용사는 관리(사물)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개입(engagement)는 의사소통에는 화자뿐만 아니라 독자(청취자)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전제아래, 화자의 언어적 표현에 의해 독자의 공간이 축소 혹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대화의 공간 축소는 화자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가지는 사람들의 공간을 배제시키는 언어적 자원으로 표출된다. 이 경우 부정(거절), 혹은 선언(declaration)등으로 드러난다. 전자는 반대의견의 배제의 경우라면 후자는 선언을 통한 확신을 보여줌으로써 대안적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반면에 공간 확대는 판단을 유보(entertain)하거나 객체화(attribute) 시킴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정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보좌관 스캔들을 “찾잔 속의 태풍”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일보, 7.26, 2018)[10]에서 ‘일축했다’는 다른 의견을 배제시키는 대화적 공간 축소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강도(intensity)는 세기와 조정으로 세부 항목화되어 있지만, 주로 부사어 (예를 들어, 매우, 참, 정말로)등을 이용하여 주장 혹은 생각하는 바를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언어적 자원을 의미한다.

III. 연구주제 및 방향

국내 전국일간신문 발행 및 유료부수 인증결과에 따르면 발행부수 및 구독률 포함했을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상위 5순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한국ABC협회, 2017)[11]. 이들 언론지들 중 일반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 성향으로,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독률과 정

치적 성향을 고려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연구대상 대중매체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수집방법으로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인 2018년 6월 12일을 중심으로 전후 15일, 즉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30일 특정 기간을 설정한 후, 해당 기간 동안에 실린 모든 사설을 검색하였다. 그 중에서 사설 전체내용을 읽어보았을 때, 북미대화와 관계가 없는 사설들은 제외시켰다. 그 결과 조선일보는 총 16 편, 한겨레신문은 총 14 편의 신문사설이 검색되었다. 보도 시기는 북미정상회담의 실현이 확실화되고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가시권에 들어온 후에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했음을 밝혀둔다. 우선, 본격적인 양적 분석에 앞서 각 사설의 헤드라인을 통해 각 신문사가 북한 혹은 북미회담에 대한 평가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2 참조). 분석 결과,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한겨레는 중립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제목의 평가
 Table 2. The evaluation of headlines of editorials from the Chosun Ilbo and the Hankyoreh

	조선일보	한겨레
부정	11	1
중립	4	5
긍정	1	8

아래 (1a)와 (1b)는 북미(미북)정상회담 직후의 사설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어이없고, ‘황당한’이라는 감정 평가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회담가치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반면, 한겨레는 ‘두 손잡은’이라는 메타포적 표현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대한’이라는 평가어를 통해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이라는 사물평가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a. 조선일보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조선일보, 6.13, 2018)
- b. 두 손 잡은 김정은-트럼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한겨레, 6.13, 2018)

표 3은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실들의 제목 목록들을 보여준다. 아래의 제목에 ‘기대한다’(3회), ‘이어지길,’은 감정판단에서 화자가 앞으로 전개될 회담에 대한 기대 및 가능성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분류되었다. 또한, ‘바람직하다’는 ‘한미연합훈련’이라는 행위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북한에게 ‘전향적으로 답하라’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명령문으로 강경하게 입장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은 한겨레에 실린 사실 제목들의 일부들이다.

표 3. 한겨레신문 사실제목 목록
Table 3. Headlines of editorials from the Hankyore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 실무협상, ‘비핵화-체제보장’의 신뢰 쌓길 - ‘북-미 회담’ 이어 ‘남·북·미 종전선언’을 기대한다 - 백악관의 ‘첫 번째 정상회담’ 발언을 주목한다 - ‘한반도 종전선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 북-미, 70년 적대관계 끝낼 ‘통 큰 합의’ 기대한다 - 두 손 잡은 김정은-트럼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 ‘비핵화 진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바람직하다 - ‘한-미 연합훈련’ 유예, 북한도 전향적으로 답하라 - 훈련 취소·유해 송환,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길 - 휴전선 장사정포 이전, 남북 간 협의를 기대한다 - ‘북한과 신뢰구축 노력’, 뜻 깊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
--

반면, 조선일보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실들이 현재의 기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표4의 조선일보 사실들은 이 같은 한겨레신문 사실들의 제목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가 있다,’ ‘지켜만 보나,’ ‘무슨 뜻인가’ 등 조선일보 사실제목들은 대부분이 설의법을 이용하여 화자의 주장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악화되고 있다,’ ‘어이없고 황당한,’ ‘흔들리는’ 등과 같은 감정 평가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북미대화를 통해 한국의 지위가 불안하고, 북한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선일보는 구어체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감정적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그 일부들이다.

표 4. 조선일보 신문 사실제목 목록
Table 4. Headlines of editorials from the Chosun Ilb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핵 폐기 의심하고 확인하는 사람 정부에 누가 있나 - 北 안전 보장한다고 韓 안전 해치는 일 결국 벌어지나 - 정부, 美·北 주한미군 변경 논의 지켜보기만 하나 - “비핵화 천천히 하라” 트럼프 말 무슨 뜻인가 - 34년 만에 제3국 방문, 정상국가 첫발걸음이 되길 -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중략) - 트럼프·문·김 체제 속 한국 안보는 어디로 가나 - 북핵 폐기 흐려지는데 한·미 동맹만 약화되고 있다 - 한·미 훈련 ‘중단’이 아니라 없어지는 길로 갈 수 있다 - 미·북 핫라인 통화,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 나와야 - 북 장사정포 철수, 한미훈련 중단대가로 관찰해야 - 흔들리는 韓美 동맹에 대한 우려,, (중략)
--

이러한 조선일보의 입장과 가치관은 미국과 북한간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실린 조선일보 사실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마틴과 화이트(2005)의 평가어 체계에 따른 분석결과, 조선일보 사실은 태도 중에서 ‘강점평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a.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손해 보는 거래를 하려고 싱가포르까지 날아가 불량 국가 독재자를 만났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 b.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은 핵무기를 감추고 있으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결과다.
- c. 그 약속 이행을 검증할 사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했다.

사실 제목자체가 ‘어이없고 황당한 미북회담’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 조선일보는 ‘어이없고’ 그리고 ‘황당한’이라는 형용사같은 감정평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2a)처럼 북한은 ‘불량’ 국가라는 감정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2b)는 연합훈련을 사물로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중단에 대한 가치를 최악의 결과라고 폄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c)는 개입에서 대화공간의 축소에 해당한다. ‘담겨야 했다’는 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지를 강조하는 부사어인 ‘반드시’를 통해서 단호

함을 강조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전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Table 5. 마틴과 화이트의 체계에 따른 분류 (조선일보)
 표 5. The Classification based on Martin and White's Framework (Chosun Ilbo)

태도	감정	불량국가, 어처구니가 없다, 걱정스럽다, 믿어지지 않는다, 허물러 쓰리다, 그런 척 하는 건지
		어이없고 황당하다
	사물	최악의 결과다, (김정은에게는) 엄청난 성과다k, 의문이다, 확신할 수 없다
개입	축소	답겨야 했다, 그런데 (3회), 그러나,
강도	조정	못 박듯이, 아예, 절대로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개입 요인에서 대화공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공간(dialogue)은 확대(expansion)와 축소(reduction)로 구분되어 진다. 각각은 화자의 주장이외에 다른 의견들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마틴과 화이트(2005)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하위세분화하고 있다.

표 6. 개입의 하위분류
 Table 6. The substandardization of engagement

공간 확대	판단 유보		양태조동사(may), 양태부사(perhaps), 양태동사(is likely to), in my view, I think
	객체	인정	말해지다, -에 따르면
공간 축소	부인	동조	결단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런데
		승인	물론, 증명하다, 지적하다
	선언	공표	결론짓다, 실제로, 정말로

이를 근거로 한겨레 사설을 분석하면 아래 (3)에 나타난 것처럼 태도와 개입이 활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a)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사물을 '세시대의 관문'으로 평가함으로써 화자는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b)는 '할 수 있다'와 같은 양태 조동사를 동반함으로써 판단을 유보하는 공간확대의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c)에서도 양

태조동사를 통한 대화적 공간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금의 공동선언문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비교함으로써 주장을 객체화시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단, 이번 공동선언문을 반박할 경우(3d)나 혹은 현 정부를 비난할 경우(3e)에는 '하지만,' 혹은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를 포함, 단호한 언어적 자원을 사용하여 대화공간의 축소를 포함할 수 있다.

3. (a) 북한과 미국이 새 시대의 관문을 열었다.
- (b) 이 모든 난관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린다고 할 수 있다
- (c) 4.27 판문점 선언이...(중략)...CVID를 대신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d) 이런 정도 합의에 이른 것 자체를 평가 절하할 이유는 없다
- (e)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아니었으면...(중략)..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유는 없다.

이러한 한겨레신문 사설 전반에 걸쳐 사실 전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7. 대화적 공간확대와 축소의 분류 (한겨레)
 Table 7. The Classifications of Dialogue Expansion and Reduction (the Hankyoreh)

태도	감정	적극적인, 동력,
공간 확대	판단유보	기록될 만하다, 할 것이다, -될(할) 것으로 보인다(2회). 할 것이다(3회), 할 수 있다, 하기 바란다, 할 수 있다.
	객체화	4.27 선언을, 고려한다면,
공간 축소	부인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2회)
	선언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분명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각각 진보와 보수 언론지의 대표 격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을 마틴과 화이트의 평가어체계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의견이

나 주장을 전달할 때 활용되는 언어적 자원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34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양정상이 만나는 6월 12일 전후 30일 동안의 신문사설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정상회담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한겨레신문은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북미정상회담직후에 실린 사설을 질적 분석했을 때, 조선일보가 사용한 언어적 자원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감정평가’ (태도지수)인 반면, 한겨레는 ‘대화적 공간 확대’(개입지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여 북미정상회담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 정부를 ‘대화적 공간 축소’(개입지수)를 활용하여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를 통해, 조선일보는 감정평가라는 주관적 견해에 치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한겨레신문은 대화적 공간확대를 이용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특정된 주제만을 다룬 사설들만을 분석한 것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처럼 주제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면 보다 객관적이고도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본다.

References

- [1] Herman, S. & Chmsky, N.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mass media. (2nd ed.) New York: Patheon Books, 2002.
- [2] van Dijk, T.A. "Discourse, Power and Access", in C.R. Caldas-Coulthard and M. Coulthard (eds) Texts and Practices: Readings i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pp. 84 - 104. London: Routledge, 1996.
- [3] Martin, J. & White, P.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4] Noh, B. K. & Ban, H. "Deciphering ideological representations in editorials of two quality newspape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22 No, 2, 2017.
- [5] Haney, F. & Tator, C.. Discourse of dominator: racial bias in the Canadian English-language press. Toro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2.
- [6] Noh, B. K. & Ban, H. "Ideological Discrepancies in News Media: Focusing o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3 No, 4, 2017.
- [7] Ban, H. & Noh, B. K. "The Role of Evaluative Language in News Translation: Focusing on Soft and Hard New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6 No, 2, 2018.
- [8] Cho, S. H. "Milyang in Sorrow. The Miserable believed Family." Busan Ilbo, Jan. 18, 2017.
- [9] Poor management in rescue equipments, operation of ship in inland waters and so on, KBS, Apr. 24, 2014.
- [10] Lee, W. K. "Mark long firmly says 'a storm in a teacup' over his advisor's scaddle," Hankuk Ilbo, July, 26, 2018.
- [11] 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 Report. URL: http://www.kabc.or.kr/about/notices/10000000_2601.